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혁신도시서 새시대 열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원주청은 7일 혁신도시 내 나라키움 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정만호 경제부지사, 이인영 강원일보 부사장을 비롯해 송기현 김기선 심기준 염동열 김진태 국회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노승락 흥

나라키움 청사서 이전 기념식 18개 공공·중앙기관 자리잡아

천군수, 박선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전정환 정선군수,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전만경 청장은 “원주청이 원주 단

계동 청사를 떠나 혁신도시로 이전, 새 시대를 열었다”며 “11개 공공기관, 7개 중앙행정기관의 원주혁신도시 이전의 마침표”라고 평가했다.

손병석 차관은 “원주청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도내 SOC 건설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격려했다. 원주=유학렬기자

폭우로 개관 4개월된 건물 누수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지하 1층 “안정기까지 침하 발생 가능”

개관한지 불과 4개월 된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이 폭우가 내린 이후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건물 주변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주변 통행로는 보도블록이 주저앉으면서 1m 내외의 깊은 구멍이 생겼다.

이와 함께 건물 외벽 마감재도 일부가 뜯겨있었다.

건물 내부 지하 1층 강의실, 1층 복도, 6층 교수회의실과 복도 천장도 일부 마감재가 뜯겨진 채 내부 관로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하지만 현재 여름 방학 기간이어서 다행히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노후 건물도 아닌, 최근 지은 건물의 강의실과 복도 등의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올 1학기 개강에 맞춰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느라 날림 공

사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보내고 있다.

강원대는 2013년부터 글로벌 TOP100 경영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국비 등 116억원을 투입, 올 1월 건물을 준공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자연적인 침하 현상으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일정 시간은 어느 정도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물 내부는 토사 유실면과 맞닿은 방수층이 깨져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교 측은 시공사를 통해 보수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

원주국토관리청 신축 이전 완료

원주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 이전 기념식이 7일 오후 나라키움 원주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원창묵 원주시장, 박호빈 시의장, 김찬영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기관단체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원주청사는 국유지 1만5574㎡에 372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6800㎡, 지상 4

층 지하1층 규모로 신축됐다. 특히 원주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 동북통계청 원주사무소, 원주세관 비즈니스센터 등 5곳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1982년 준공된 단계동 합동청사에서 35년여동안 업무를 해 왔지만 건물 노후로 안전진단 C등급, 실내공기 석면 검출 등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박성준

준공 4개월된 강원대 건물 부실공사 논란

글로벌경영관 보도블록 꺼짐 현상 강의실 천장 누수로 마감재 떨어져 강원대 "겨울 준공 탓... 안전 이상무"

준공된 지 4개월된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건물 주변 보도블록이 주저앉고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글로벌경영관은 최근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건물을 둘러싼 보도블록이 내려앉은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깊이 1m가량의 깊은 구멍도 생겼다. 건물 현관앞 계단과 보도블록 사이는 성인남성 손가락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다. 건물 외벽은 일부 뜯겨져 나갔고 맞닿아 있는 비탈면에는 흙이 흘러내려 방지망을 덮어놨다.

건물 내부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지하 1층 강의실과 1층 복도, 6층 복도 등은 천장 마감재에 물이 스며들면서 마감재가 떨어졌다. 지하 1층 강의실은

마감재가 5-6곳이 떨어졌다. 강원대는 지난 5일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땅 꺼짐 현상이 심각한 곳만 출입금지 띠를 둘러냈으며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강원대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관계자는 "겨울에 건물을 준공

해 얼어붙은 땅을 다지다보니 날씨가 풀리면서 그 사이로 간격이 생겨 보도블록이 주저앉았다. 겨울에 준공한 건물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며 "건물 누수는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방수층에 빗물이 스며든 것이 원인이며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세현